

지역주민과 의료진이 만드는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



동네 작은 병원에서 노부부가 진료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 번 진료 이후의 증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 몸 상태는 어떤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고받는 모습이다. 진료실이라는 공간적 구성과 의사임을 나타내주는 흰색가운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흔히 보아 오던 병원진료실의 환자와 의사의 분위기가 아닌 또 다른 정감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흔히 병원을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않는 우리의 정서, 눈에 드러나는 병이 생겨야만 병원에 가는 우리네가 의사를 만나는 일은 아마도 입사시험에서 면접시험에 대기하는 수험생의 초조한 심정과도 같으리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활협)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색다른 의료 환경을 접할 수 있다. 담당 주치의의를 통해

개인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해나가고, 가정방문진료와 가정간호 등이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생협은 병의원 아님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서 자신과 이웃, 그리고 동네의 건강과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나가기 위한 활동이 생활협동조합인데 그 중 보건의료나 사회복지 등을 특화하여 만든 것이 의료생협입니다.”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새안산의원 이재광 원장의 말이다.

‘청십자운동’이 의료생협의 시발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들의 건강, 의료와 관련하는 생활상의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해결하는 자발적인 협동조직이다. 지역주민들이 의료, 보건행위의 주체로 활동하면서 의료기관 등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자치조직이다. ‘의료’란 단어를 뺀 생활협동조합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의료생활협동조합’은 다소 생소하다. 하지만 의료행위의 주체인 지역주민이 돈을 내고 그 돈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생협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이러한 의료생협수가 136개에 달하고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의 수도 170만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민간의료보험조합운동으로 알려진 청십자운동이 지난 1975년 장기려박사를 중심으로 부산지역의 교회와 지역주민 사이에서



안산의료생협은 2000년 4월

총 840세대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시작했고,

현재 1,000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

새안산의원과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전국에는 안성, 인천, 안산, 원주, 대전, 서울 6개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운영되고 있고, 청주를 비롯한 3지역에서는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한다.

안산의료생협은 지난 2000년 4월 총 840세대가 조합원으로 참여해 시작했고, 현재는 1,000세대가 조합원으로 가입, 새안산의원과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과 시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이 지역에 직장이 있고 1만 원 이상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안산은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공단이라는 산업 지리적 요인, ‘시화호’라는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어찌보면 의료생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안산은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과

공단이라는 요인,

'시화호'라는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

의료생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곳이다. 실제로 안산의료생협은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의료를 함께 고민하는 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건강이란 것은 호흡하는 공기나 물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환경과 의료는 그래서 떼 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게 건강이 나빠지지 않더라도 이런 환경적 요인은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외연적으로나 내면적으로도 ‘환경운동’은 어쩌면 큰 차원의 의료예방



'길거리 건강 체크'를 통해 직접 지역민들과 만나는 일 또한 의료생협의 일이다.

이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 안산의료생협을 만들 때부터 중심이 되어 일을 해 온 경창수 실장도 환경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현재 안산의료생협은 의료인 6명에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늘상 그렇듯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과연 1,000세대가 낸 출자금만으로 그 비싼 의료장비 구입과 병원의 운영이 가능할까? 출자금 1만 원 이상이면 평생회원이 된다는데...

“그렇죠. 그 비싼 의료장비를 저희가 다 구입할 순 없죠. 그만한 액수도 안 되고요. 워낙에 출자금이란 것이 소액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의 의료장비는 리스 합니다. 그리고 병원 운영의 이익금으로 조금씩 갚아가고 재정부분이 힘들 땐 약간의 대출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초기에는 출자부분이 적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정도는 된다. 경실장의 말이다.

안산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가난한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거나,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차량이 용을 도와 방문 진료를 하기도 한다.

의료생협에서는 단순히 조합원들의 건강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이들의 뜻이다. 일주일에 한번 씩 길거리 건강체크를 통해 직



안산과 시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이지역에 직장이 있고 1만원 이상의 출자금만 내면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접 지역민들과 만나는 보건예방활동에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은 의료생협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무리 뜻이 좋다고 말처럼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겠는가.

건강과 생활의 의료생협

지난 98년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이재광 원장은 '의료생협'에 참여를 제의 받았지만 같이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한다. 그저 모임에만 참여 하겠다고 했는데 1년 여를 하다보니 같이 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의료생협에 참여하고 있다.

“제가 하는 의료생협의 일들은 다른 의사들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기자들이 와서 제가 무슨 희생적인 봉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볼 때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합니다.”

겸손한 말로 스스로를 대하는 이 원장의 말에서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건강과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조

합원 또는 지역주민들 스스로 현실에 맞게 만들어 가는 것은, 뜻은 좋은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대개 협동조합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취하는데 이제까지 누가 해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해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쌓이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습니까?”

아픈 것이 확인돼야만 병원을 다니는 습성상 모처럼의 좋은 기회를 놓칠까 싶어 한의원에 진료를 신청했다. 독감이 아무리 심하게 걸려도 3분 이내에 모든 것을 결정내리고, 진찰해 주는 의사의 얼굴을 정확히 보지도 못하고 진료실을 나오곤 했던 경험들이 스친다. 하지만 그날 평생 가장 오랜 시간동안 진료를 받았다. TV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귀하신 양반들처럼 주치의의 두지 않더라도,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파업을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내 건강을 평생 체크해 줄 주치의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아마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병원이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편집부〉